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배 포	2017. 5. 24.(수)
	담 당 과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정책과 (☎043-719-3702)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043-719-3603)
	과 장	안영진 (☎043-719-3701) 최보경 (☎043-719-3601)
사 무 관	신경승 (☎043-719-3702) 김정근 (☎043-719-3603)	

식약처, 여성 생리용품 현황조사 및 안전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생리용품에 대한 국내 사용현황 결과와 제품 종류별 사용 요령 등 올바른 생리용품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사용현황, 사용기준 등과 함께 최근 새로운 생리용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리컵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경험 등을 조사하여 생리용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0~60세 미만 가임 여성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허가가 없는 생리컵은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 체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입·사용한 적이 있는 153명을 추가 조사하였다.
- 생리용품은 생리혈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일회용·다회용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이 있다.

- 국내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산실적은 '16년 2,979억원으로 '15년(2,739억원)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수입실적은 지난해 273억원으로 '15년(329억원)보다 20.5% 감소하였다.
 - 생리대 생산실적은 '16년 2,866억원으로 '15년(2,647억원)보다 8.3% 증가하였고 수입실적은 242억원으로 '15년(307억)보다 21.2%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탐폰 생산실적은 '16년 113억원으로 '15년(92억원)보다 22.8% 증가하였으며, 수입실적은 31억원으로 '15년(22억원)보다 40.9% 증가하였다.
- 참고로, 생리대, 탐폰, 질 세정제 등 여성용품의 미국 내 시장 규모는 약 31억 달러('15년 기준)였으며, 일회용 생리대(53.2%), 탐폰(35.4%), 기타 생리용품(10.9%), 생리컵(0.5%)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여성들의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인식도는 다음과 같다.

< 생리용품 사용실태 및 인식도 조사 >

- 조사 대상자(1,028명) 중 생리대와 탐폰,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의 중복 사용자가 217명이었으며, 중복 사용을 포함하여 현재 사용중인 생리용품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일회용 생리대(80.9%), 탐폰(10.7%), 다회용 생리대(7.1%), 생리컵(1.4%) 순이었다.
- 조사대상(1,028명) 중 생리용품을 구매 또는 사용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사용 편리성'(36.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안전성'(27.8%), '기능성'(26%), '경제성'(9.7%) 순이었다.
- 생리용품에 대한 만족도는 '사용편리성'과 '흡수 및 새는 정도'에

서 각각 45.8%, 35.8%를 보인 반면, '구입 가격'(11.7%), '생리통 영향정도'(15.9%), '피부 트러블'(17.9%), '냄새 차단정도'(18.3%) 등의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생리용품 구입 시 원료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는 소비자는 7.7%, 가급적 확인하는 소비자는 37.7%, 전혀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7.7%, 별로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는 46.8%로 조사되었다.
- 제품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5.4%로 소비자가 생리용품 제품포장 정보를 참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생리컵 인지도 및 사용경험 조사 >

- 생리컵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41.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연령별로는 10~20대가 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으며, 30대(42.5%), 40대(21.1%), 50대(20.5%) 순으로 나타났다.
- 생리컵 사용 경험자(199명)를 대상으로 사용 시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경제적 부담감소' 87.4%, '환경보호' 85.9%, '피부알레르기 예방' 85.4% 등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 생리컵 사용 경험자 : 무작위 표본(1,028명) 중 46명 +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추가 모집한 생리컵 사용자153명 = 199명
- 다만 생리컵 비경험자 중 생리컵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은 31.6%, '호감이 없다'는 응답은 68.4%로 조사되었다.
 - 생리컵 사용에 대한 비호감 이유는 '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감'(79.2%)이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문제'(59.4%), '사용방법 등 어려움'(57.3%) 등이다.

- 안전한 생리용품 사용을 위해서는 생리 양, 활동량 등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 시에는 피부가 약해지고 습한 상태가 지속되며 생리대를 장시간 사용하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리 양이 많은 날을 기준으로 2~3시간마다 교체한다.
 - 생리 양이 적더라도 같은 생리대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생리 기간 중에는 조이는 옷 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 다회용 생리대는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위생 관리해야 하며, 사용 후 가능한 빨리 세탁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서 사용한다.
 - 제품 세탁을 위해 장시간 삶으면 제품의 외부 방수천이 손상되어 제품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로 삶는 등 주의하여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 탐폰은 여성 질 내에서 생리혈을 직접 흡수하는 제품으로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삽입 후 제거용 실을 자르지 말고 일부가 몸 밖으로 나온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착용 시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다른 종류의 생리용품을 사용한다.
 - 탐폰 사용 중 갑작스런 고열, 근육통, 구토, 설사,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탐폰을 제거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며, 매우 드물지만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독성쇼크증후군(TSS): 황색포도상구균 독소에 의해 발생하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냄

- 생리컵은 탐폰과 같이 질 내로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반드시 손을 청결히 한 후 사용하고 사용 후 제품을 깨끗하게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크기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사용 시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제거한 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손상이나 변색·변형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리용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첨부 > 1. 생리용품 사용실태 조사 결과

2. 의약외품 '생리용품' 품목허가 현황('17. 5. 21. 기준)

첨부 1 국내 생리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방법

- (수행기관) (사)여성환경연대
- (기간) '17.3.9. ~ 5.4.
- (대상) 여성(생리현상이 없는 여성 제외) 1,028명(일반표본)
생리컵 사용 경험이 있는 여성 153명(표적표본)
- (조사방법) ① Web설문 조사(1,181명, 일반표본(1,028) + 표적표본(153))
 - 생리용품 사용현황 조사(1,028명)
 - 생리컵 경험자 조사(199명, 일반표본(46)+ 표적표본(153))
 - 생리컵 非경험자 조사(982명)
- ② 인터뷰조사 FGI(생리컵 사용자 집중 인터뷰, 50명)
: 생리컵 사용기간, 연령별 총 7개 그룹으로 나누어 2시간 동안 집단 인터뷰 실시

○ 설문 결과

① Web 설문 조사(1,181명)

< 생리용품 사용현황 조사(1,028명) >

질문내용	답변내용
생리용품 사용 종류 (현재 사용 중) * 중복 포함 1,245명 대상	일회용 생리대(1,007명, 80.9%), 탐폰(133명, 10.7%), 다회용 생리대(88명, 7.1%), 생리컵(17명, 1.4%)(중복 고려)
생리용품 사용 시 주요 고려요소	1. 사용편리성(36.4%, 374명) 2. 안전성(27.8%, 286명) 3. 기능성(26%, 267명) 4. 경제성(9.7%, 100명)
생리컵 인지도	모른다(58.9%) > 알고 있다(41.1%) * (알고 있다)는 비율은 29세 이하 여성(344명) 중 61.0%(210명), 30대(322명) 중 42.5%(137명), 40대(289명) 중 21.1%(61명), 50대 (73명) 중 20.5%(15명)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알고 있다 ■ 대략 안다 ■ 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
<p>생리컵 인지 경로</p> <p>*전체(1,028명) 및 생리컵 사용자(153명) 중 응답자 796명이 중복 답변(모수는 전체 1,044명)</p>	<p>온라인 SNS(506명, 48.5%) > 언론보도(253명, 24.2%) > 지인소개(154명, 14.7%) > 쇼핑몰 등(131명, 12.5%)</p>
<p>생리용품 제품별 중단 이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회용 생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가려움·긁무름, 냄새, 구입가격 부담, 환경적 문제 등 2. 탐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불편(이물감, 체내 삽입 및 사용 후 처리 불편 등), 구입가격 부담, 불안감(새거나 건강 염려), 화학물질 우려 등 3. 다회용 생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불편(세탁 등), 외출 시 불편, 냄새, 흡수력 및 위생 우려,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불편 4. 생리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불편(통증, 체내 삽입불편 등), 교체 시 불편(주변 환경), 위생 우려, 불안감(건강 염려) 등

< 생리컵 경험자 조사(199명) >

질문내용	답변내용
생리컵 사용 경험 (만족도)	경제적 부담감소(174명, 87.4%), 환경보호(171명, 85.9%), 피부알레르기예방(170명, 85.4%) 등
생리컵 사용 경험	<p>· 생리컵을 주요 생리용품으로 이용(73.9%), 다른 생리용품의 보조제품으로 이용(12.1%), 경험상 이용(13.1%)</p> <p>· 주 사용자는 10-20대의 젊은 층(60.8%)임.</p> <p>· 10-20대의 젊은 층은 주요 생리용품으로 이용하는 한편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경험 삼아 이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차이</p>
생리컵 사용기간	<p>3개월 이내(25.7%), 3~6개월(28.1%), 6개월~1년(18.7%), 1~2년(11.7%), 2년 이상(15.8%)</p> <p>* 생리대 사용경험자(199명)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171명) 조사 결과</p>
생리컵 구입경로	<p>해외 사이트(41.7%), 온라인 사이트(40.7%), 해외에서 직접 구매(11.6%), 기타(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온라인사이트 ■ 국내 온라인사이트 ■ 해외에서 직접구매 ■ 기타
좋은 점	경제성(재사용가능) > 피부친화성(피부트러블 차단) > 환경보호 기여(폐기물 감소) > 활동 편리성 > 생리혈 양 및 상태 확인 > 기능성(냄새 및 새는 정도) > 건강지향성(질염, 생리 통 등 완화)
나쁜 점	사용방법 불편 > 위생관리 불편 > 판매정보 부족 > 이물감 > 기능 불만족 > 건강문제 등
1일 교체 빈도	3회(42.2%), 2회(32.7%), 4회 이상(18.6%), 1회(6%), 기타(0.5%)

생리컵 교체방법	세척하여 재사용(77.4%), 다른 생리컵으로 교체(11.1%), 다른 생리용품(일회용 생리대 등)으로 교체
생리컵 세척방법	수돗물로 세척하여 재사용(67.8%), 수돗물로 세척 후 세제로 닦아 재사용(17.6%), 삶아서 재사용(10.6%), 휴지나 물티슈로 닦아서 재사용(3.5%), 기타(0.5%)
적정 사용기한 인식정도	3년 이상(51.3%), 2~3년 미만(17.6%), 1년미만(14.6%), 1~2년미만(10.6%), 1회 사용 후 폐기(6%)
타인 추천 의향	매우 있다(64.8%), 다소 있다(17.6%), 보통(9.5%), 별로 없다(7%), 전혀 없다(1%)

< 생리컵 非경험자 조사(982명) >

질문내용	답변내용
생리용품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한다는 답변 1. 사용편리성 45.4%(446명) 2. 흡수 및 새는 정도 35.8%(352명) 3. 활동성 25.9%(254명) - 만족 답변이 20%미만인 경우 (구입가격 11.7%, 생리통 영향정도 15.9%, 피부 트러블 17.9%, 냄새 차단정도 18.3% 등)
제품 포장 확인 정도	반드시 확인(7.7%, 76명), 가급적 확인(37.7%, 370명), 별로 확인하지 않는다(46.8%, 460명),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7.7%, 76명)
생리컵 호감정도	비호감(68.4%) > 호감 (31.6%)
생리컵 비호감 이유 *전체 조사대상(1,028명) 중 생리컵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여성 672명 조사	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감(532명, 79.2%) > 위생관리 우려(399명, 59.4%) > 사용법 어려움(385명, 57.3%) > 건강우려(질염 등) > 세거나 흡수력 떨어짐 > 처음 보는 생리용품 > 기타(초기 구입비용이 비쌌)
1일 교체 빈도	4회 이상(66.7%), 3회(26.0%), 2회(6%), 기타(0.9%)

생리용품 만족도	사용편리성(착용, 교체 등) > 흡수 및 새는 정도 > 활동성 > 기타 등
생리용품 구입 시 제품정보 확인 정도	확인하지 않는다(54.6%) > 확인한다(45.4%)
생리컵 호감 이유 * 응답자 310명 대상	경제성 > 짓무름, 피부 트러블이 적을 것 같음 > 냄새 덜나고 새는 일이 적을 것 같음 > 환경보호 > 안전할 것 같음 > 활동성 > 생리혈의 양과 상태 확인
세척 후 재사용 고려한 생리컵 향후 사용 의향	없다(53.9%) > 있다(20.7%)
생리컵을 사용해야 한다면	기존 생리대의 보완적 사용(74.4%) > 주 생리용품으로 사용(16.1%) > 기존 생리대 대체하여 사용(9.5%)

② FGI 인터뷰 방법 및 결과

- 1) 인터뷰 대상 : 50명
- 2) 인터뷰내용 : 생리컵 사용 계기 및 사용 패턴, 생리컵 사용 노하우, 생리컵 사용 기피 또는 선호 원인 등
- 3) 조사결과

질문내용	답변내용
사용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짓무름, 생리통, 질염 등 건강문제 - 경제적 이유 - 활동 편리성 - 환경 보호 실천 - 경험 교류를 통한 정보 습득
사용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대 초반으로 대부분 최근 1~2년 사이 첫 사용 경험(해외여행, 온라인 등을 통해 처음 접함) - 사용 시 3~6개월 적응기간 필요 - 수면 중 주로 사용, 착용·제거·교환의 어려움으로 집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생리 용품과 병행 사용
정보 취득경로	- 각종 블로그 등 온라인 , 대안생리대 워크숍 및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 정보 습득
좋은 점	생리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 냄새, 가려움증 등 개선, 경제성(5년 이상 사용), 활동성 향상 등
나쁜 점	착용·제거·교체방법 등 정보 부족, 해외직구를 통한 구입 불편, 위생 문제 우려, 체내 삽입에 대한 거부 등 부정적 사회 인식(처녀막 손실 등)